



축산기자재만을 고집해온 엔지니어

한국강화플라스틱 박장춘 사장

"우리 제품을 쓰는 축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듭니다. 양축가가 위축되고 줄어드는 것은 곧 우리가 위축되는 것을 뜻하니까요."

- 취재 : 조진현 -

나름하면서도 따뜻한 봄이다.

봄의 나른함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와 휴식의 의미와 함께 겨우내 움츠렸던 동·식물들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아우성치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새로운 진보는 항상 아름답다.

한해 한해를 새로이 태어나는 동·식물처럼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한국강화플라스틱 박장춘 사장이다.

한 국 최초로 1979년부터 FRP(강화플라스틱) 사료저장탱크를 도입해 20여년 동안 양축가에게 공급해 온 한국강화플라스틱(위치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28번지, 전화 : 0343-52-5575) 박장춘 사장은 공고를 졸업한 후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로써 제품의 개발과 신제품의 창출에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72년 강화플라스틱(FRP)이 처음 국내에 소개됐을 때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FRP 기술을 익혀와 79년 회사를 창립하면서 사료탱크에 국내 처음으로 FRP를 적용하였다.

양축가와 공생공존 한다는 생각으로 제품 공급

현재 양돈용, 우사용 분말사료 자동급이기와 액상사료 자동급이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드라이버 유니트, 호파, 코나, 파이프 조립행거 등 20여개의 고유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급이통, 바닥재, 천정 채광판, 플라스틱 계란난좌 등 각종 플라스틱 축산기자재를 금형·사출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진공포장재료(플라스틱)의 생산과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원래 어려운 어린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농촌 출신으로써 FRP를 도입하여 사료탱크를 공급하면서 축산인들의 어려운 고통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엔지니어로서의 의무감으로 우리의 축산인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우리제품을 쓰는 축산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축가와 우리회사가 공생공존한다는 생각을 항상 버리지 않고 있죠”라고 그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한국강화플라스틱은 더욱 빠른 운송을 위해 5년전 전북 정읍공장을 추가 설립하여 대전 이남과 이북방면으로 나누어, 서울공장에 A/S차량 3대, 정읍공장에 A/S차량 2대를 가동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시골 구석구석의 농장으로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현재 기자재 업체들이 아직 많이 영세하여 개발해서 특허를 내 놓아도 금방 모방해 버리는 실정이므로, 특허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도가 정해졌으면 하고 바랐다.

“친절·축적된 기술·신제품 창출”을 기업경영의 지표로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하며, “친절·축적된 기술·신제품 창출”을 기업경영의 지표로 삼고있는 박장춘 사장은 “우리 ‘한국강화’에서는 축산에



▲20여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자랑스런 사료저장탱크 옆에서 선 박장춘 사장

관한 모든 기자재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어 새로이 시작하는 축산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저비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회사가 다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으로의 수출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축산물의 포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진공포장재료의 확대공급으로 국가경제에 일익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박장춘 사장은 이야기한다.

‘한국강화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축산기자재를

위주로 유지·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품개발의 과정에서 불에 안타는(난염성) 플라스틱 자재 등 건축자재까지도 자연스럽게 개발하기도 하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업 초창기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정도 없는 상태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착실하게 현장에서 직접 치수를 재고, 제작을 하였다고 옛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우리 ‘한국강화’ 저장탱크는 20여년간의 계속된 개선으로 하부 브릿지 현상 방지구조, 선명한 투시창, 하부의 물받이, 상부 공기통풍 원활 등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긍심 있게 이야기했다.

참고로 100여명의 회사가족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한국강화플라스틱은 국내 급이기의 80%, 사료탱크의 95%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養豚**